



영산강 물막이 공사 4대 강 예산 내에서도 영산강에서 착공된 2개 보 가운데 승촌보의 임시 물막이 작업이 마무리됐다. 임시 물 막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보를 만들기 위해 철 구조물을 이용한 터 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뒷돈’ 챙긴 간판급 의사들

광주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2명 구속 등 10명 기소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6면〉

특히 검찰의 이번 단속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형 병원의 ‘간판급’ 의사들이 대거 포함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광주일보 11월 4일자 6면)의 실체가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기독병원 의사 A(41)씨와 B(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전남대병원 C(56)씨와 D(52)씨 등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전남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현직 대학 및 종합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된 의사는 기독병원 4명, 전남대병원 3명, 전북대병원 2명, 조선대병원 1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약업체로부터 134차례에 걸쳐 1억2천4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의 의사도 각각 2천400만~9천700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댄딩비’(납품사례비)를 비롯, PMS(시판 후 임상조사)비용, 강연료, 논문 번역료, 학회·세미나 경비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업자와 미리 짜고 식당 업주를 통해 소위 ‘카드깡’을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의사 70여명 가운데 금품 수수액이 많은 31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의사 21명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측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자체 징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알림

‘테마칼럼’ 필진 바뀝니다

신년을 맞아 광주일보 금요 인기칼럼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도시와 삶, 문화, 글로벌, 건강 등 4개 테마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김세곤 위원장 노경수 교수 사세 교수 최명순 지원장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장
▲전남대 법과대학 졸업 ▲영국워릭대 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주미한국대사관 노무관·서울지방노동위 사무국장 등 역임 ▲수필집 ‘국화처럼 향기롭게’, 답사 기행집 ‘고봉, 퇴계를 그리워하다’ 등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졸업, 동대학원 도시공학전공 ▲광주시 도시공사 자문위원 ▲부동산114주식회사 자문위원 ▲전라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베르너 사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
▲독일 출신 ▲독일 보훔 대학교 한국학 박사학위 취득 ▲보훔 대학교·함부르크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유럽한국학회 회장 ▲전남대 5·18연구소 객원교수 ▲하노버 린던 미술회 공동전시 참가 등 다수

◇최명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성신여대 간호대학 졸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인제대 대학원 보건행정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부·의료보호부·민원상담부·수가기준부장 역임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光州日報社

한전 나주혁신도시 땅 계약

한국전력거래소도...연내 4개 기관 체결

국내 최대의 공기업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9일 서울 본사에서 광주도시공사와 이전 분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면〉

한전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은 지난 7월31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전국 최초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이날 계약을 맺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이어 세 번째다.

또 이날 한국전력거래소(4만4천149㎡, 199억원)도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해 이전 기관 17곳 중 모두 4개 기관이 올해 내에 부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업연수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이전 대상기관 11곳도 내년 초에 부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과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나주시 산포면 일대 14만9천372㎡ 면적의 한전 본사 사옥부지에 대해 676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은 매입비의 10%인 67억원에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한전과 광주도시공사는 또 계약 부대조건으로 혁신도시 건설 실시계획 변경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 국고 지원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부지에서 무상공급 면적으로 줄이고 유상공급 면적을 늘리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와 세종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맞물려 혁신도시에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 조성비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부지 매입가격도 변화될 수 있는 점을 계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한전 사옥부지 매입 계약은 지난 2007년 12월 지방 이전을 결정한 이래 2년여만이며 한전은 내년 2월 사옥 건설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작품 접수를 거쳐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오는 2012년 12월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혁신도시건설추진국회의원모임 대표인 최인기 의원은 29일 “한전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전 부지매입 계약 채

결을 고의로 지연시켜오던 것이 완전히 불식될 것”이라며 “이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물론 전국 10개 지역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31일 특별사면·복권 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의안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경제인에 대한 ‘윈 포인트’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현

재 정치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종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때문에 골짜기까지 있고, 원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가 자문컨설팅과 함께, 내일 국가가 발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기초를 만들고, 세종시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희 '세가'입니다.

세종시정부자문컨설팅회
www.sejongcity.go.kr